

총본산 미암사 복지공간으로 가꿀터

대각종 총무원장 만칭 스님 신년 인터뷰

대각종 총무원장 만칭 스님(부여 미암사 주지)은 "총본산 불사를 여법하게 진행하고 승종 직책을 위해 승가교육을 확대하는 등 종단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대각종은 현재 전국 13개 교구 800여 말사에 900여 스님 및 교육직 재가자가 활동 중이다.

▲총본산 불사의 청사진은 어떠 한지요?
-총무원이 있는 미암사를 총본산으로 바꾸기 위한 불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불사는 노인 복지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체불사에 필요한 8만평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으며 올해는 대웅전, 요사채, 관음전, 극락전 등 전각을 새로 건립할 것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독거노인,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등 복지공간이 들어서게 됩니다. 노인요양원, 노인병원, 실버타운, 납골묘지 및 납골당 등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신생종단으로서 엄격한 종풍을 세울 필요가 있을 텐데요.

-대각종은 1996년 창종 당시 67곳 말사로 출발, 현재 800여 말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엄격한 종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된 하겠습니 다.

▲대각종은 해외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각종은 스리랑카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미국 불교계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활발한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 국주회



화 교육자들 모임(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or for world peace)에서 개최하는 세계 평화와 종교화합을 기원하는 행사에도 참가합니다.

만칭 스님은 이밖에 "신도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도회 차원에서 제절마다 정기 성지순례를 실시하고 방생법회를 계획한다"고 밝혔다.

또 대각종은 4월 중순 총본산 미암사에 조성된 와불점안사, 5월 백마강 삼천궁녀 진혼제, 10월 창종 기념법회 등도 개최한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백제불교 일본전래 기념법회 日과 공동진행 승가교육 수시 실시·신도회 성지순례 정례화

교구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새로운 인물들을 공식인 교구 총무원장에 임명해 탄탄한 행정망을 갖춰나갈 방침입니다.

총무원 임원진을 개편해 능력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올해부터는 승풍진작과 단합을 위해 승가교육도 수시로 실시

와 공동으로 백제불교의 일본 전래를 기념하는 법회를 5-6월경 부시에 불교사은비에서 함께 열 계획입니다.

스리랑카에는 지난 몇 년 동안 현지에서 초등학교 교실 건립을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는 콜롬보 마하보디사와의 교류를 실시할 것입니다. UN 엔지오인 '국제 세계평

조계종 주지연수 강화

올해 본말사주지연수는 현장중심의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올해 조계종 본·말사 주지 연수 교육이 사찰세무행정, 여성신도 관리 방안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강화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는)은 3월 8일 오후 2시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05년도 교구본사 교무국장 회의를 열고 올해 본·말사주지연수와 불교지도자연수(법랍 20년차, 25년차)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주제별 심화(본반)교육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사찰세무행정 △사찰 컨설팅 △사찰신도 2배 늘리기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사찰의 대응 △사찰의 신도상담 △여성불자들이 해하기 △국내외의 수행 흐름과 간화선 수행체계의 이해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교육 △정부 예산정책 및 대정부 지원금 사용원칙 등 9개 주제 가운데 5개 주제를 선정해 실시된다.

교육원은 올해 주지연수를 6월 28일-7월 27일까지 권역별로 중앙승가대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이날 해당 교구 교무국장 스님들에게 대상자 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에 앞서 본말사 주지연수 해당 스님 가운데 승랍 20년, 25년차 스님들을 위한 별도의 지도자 연수과정도 마련됐다. 불교지도자 연수는 20년차 3월 21-23일, 25년차 3월 29-31일 천안 도교 한국증권연수원에서 각각 열린다. (02)732-4923

조용수 기자

'태고중앙복지재단'으로 명칭 변경

합천공익회 이사회 의결

사회복지법인 합천공익회(대표이사 윤산 스님)는 태고중앙복지재단(대표이사 윤산 스님)가 2월 28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인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태고중앙복지재단'으로 변경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주사무소 충남 논산에서 태고종 총무원사로 이전 △청평 태양실버타운과 노인양로원을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 가평군에 분사무소 설치 △사업 내용을 '노인결연사업'에서 '노인주거복지사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정관 개정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합천공익회 대표이사 윤산 스님은 "이번 개정을 통해 종도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활성화 된 업무가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산 스님은 또 "앞으로도 중앙복지재단과 지역교구 및 사찰에서 운영되는 복지시설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종단의 사회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위탁 또는 자체시설 건립 등을 통해 산하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태고중앙복지재단이 운영할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태양실버타운 전경.

관문사, 미얀마에 쓰나미 성금 전달

천태종 서울 관문사주지 총광 스님은 3월 9일 관문사 2층 회의실에서 우내원(U Nay Win) 주한 미얀마 대사에게 쓰나미성금 5천달러를 전달했다.

이날 관문사는 2월6일 경내에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국가 돕기 일출장터를 연 바 있다. 미얀마는 쓰나미로 인해 사망 61명, 부상 43명, 3천여 이상의 가옥과 교 등의 피해를 입었다.

우내원 대사는 "이 성금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라며 "미얀마 국민들을 대신해 관문사 신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관문사에서는 2월6일 경내에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국가 돕기 일출장터를 연 바 있다.

미얀마는 쓰나미로 인해 사망 61명, 부상 43명, 3천여 이상의 가옥과 교 등의 피해를 입었다.

김원우 기자



관문사 주지 총광 스님이 우내원 주한 미얀마 대사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미륵종, 종단협의회에 가입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정)는 3월 3일 서울 하림각에서 41차 정기총회를 갖고 한국불교 미륵종(이하 미륵종)의 신규 회원종단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은 총 27개가 되었다.

종단협의회는 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을 부회장으로, 천태종 총무부장 문덕 스님을 상임이사로,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과 법륜종 총무원장 탄공 스님, 미타종 총무원장 성우 스님,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 등 4명을 새 이사로 선

출했다.

한편 미륵종은 1987년 창종했으며, 2000년 문화관광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총무원은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며, 144개 사찰에 320명의 승려가 있다.

김원우 기자

종단 봄맞이 행사 잇따라

종단들이 새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원용종(총무원장 법륜)은 3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원용사에서 원용종 창종 25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원용종은 3월 1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총무원 임원진 개편을 단행했다. (02)433-9780

삼론종(총무원장 해광)은 3월 20일 낮 12시 총주담에서 국운융창 경제회복 만능불사 대법회를 봉행한다. 삼론종 종정 석봉 스님 등 삼론종 종도 2천여 명이 참석하는 이 법회는 1부 종정 스님 법문과 2부 법패 공연으로 진행된다. (02)379-4679

본원종(총무원장 대화)도 음력 3월 삼짇날인 4월 11일 오후 1시 총주담에서 남북 평화통일과 국민안을 기원하는 수륙고혼천도법회를

한다. 이날 법회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방생법회도 겸하고 있다. (02)391-4376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3월 19일 오후 1시 김해 진례면 학재체육관에서 창종기념법회와 보살계수계법회를 봉행한다. 미륵종은 3월 29일-4월 2일 태국으로 불교 성지순례를 떠난다. (051)466-3977

강유신 기자

진주 미륵암 용왕대수제

진주 미륵암(주지 청강)은 정월대보름인 2월 23일 오전 남해군 앞바다에서 어업 종사자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용왕대수제를 개최했다. 미륵암은 같은 날 오후 경내에서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묘전지를 열었다.

강유신 기자

대승종 도암 종정 사리 48과 나와

3월 1일 봉행된 대승종 종정 도암 성도대중사의 다비식에서 오색 영통한 사리 48과가 수습됐다(사진). 성도대중사 장의위원회(위원장 법천)는 2일 "사리를 수습한 결과 좁쌀 크기에서 콩알 크기까지 검은색,

유백색, 홍색, 청색, 자색 등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리가 48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사리는 도암 스님의 주석처였던 서울 흥도사로 이운했으며 4월 14일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02)2234-2198



김원우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30-0705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여행경비: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자	교통	일정
1일	CZ686 CZ3962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산사 순례 및 대련 관광/정주로 이동
2일	전용버스	개봉-유정, 철탈, 포공사 관광
3일	전용버스	소림사, 탐림, 백마사 순례
4일	CZ3961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5일	CZ685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팀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중국의 6대조를 모신 중국의 6대조를 모신 순례 5일

여행경비: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자	교통	일정
1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해선사, 용문사 순례
3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일	전용버스	심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5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팀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오와유림선으로 여행 및 순례 (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악불사, 담겨사, 음악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꼭부 6일 (현불동, 영암사, 잠심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대 가이드 기사 팀 불포함



삼보에 귀의 하시고 당시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들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오와유림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세계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의 소리와 문양!

-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의 범종 -



한국 최초의 범종제작사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는 지난 2002년 충북 진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20000관까지 제작 가능한 세계 최대의 주조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최대의 범종제작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종사의 명성이 國內은 물론 海外까지 알려져,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日本, 中國, 臺灣, 싱가포르, 美國,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범종을 수출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도 탁월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최대인 광주 민주의 종(8150관) 제작중)

성종사 범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한 성종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합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에 흑색 케이트록을 했던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곡리 406-28 www.sungjongsas.co.kr E-MAIL : sungjongsas@hotmail.com